

東京電力 대대적인 節電캠페인 실시 !!

(자료 : 산업자원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東京)電力(주)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의 격납용기 보수사실 은폐와 보수기록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2002년 10월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으로부터 1년간의 발전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도쿄전력의 회장(荒木 浩), 사장(南 直哉) 등 경영간부들이 사직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젖은 고장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계획을 작성·실시하는 등 신뢰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17기 중 12기가 발전정지 됨으로써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이후에는 공급예비율이 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O/H일정 조정, 부하조절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쿄전력에서 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 아래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도 전력소비 및 LNG 소비의 급증으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아라크 전쟁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시행” 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전캠페인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에너지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중 일부 “전력기기별 절전내용”을 소개한다.

<전력기기별 절전요령>

■ 절전 안내문

절전에 대한 협조요청

전력공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절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난방온도의 설정을 낮게 유지합시다
-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합시다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격층운행을 합시다
- 미 사용중인 기기는 스위치를 꼭 꺼주십시오

■ 전력 기기별 절전요령

에어콘을 사용할 경우

•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플러그를 뽑아둔다 !!

에어콘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미량의 전기(1일 72kWh)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꼭 에어콘의 플러그를 콘센트로부터 뽑아 두도록 합시다.

(플러그를 뽑아둘 경우)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27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4kg



• 에어필터의 청소를 세심하게 !!

에어필터의 청소는, 2주간에 1회 정도 해 주십시오. 필터가 더러워지면 풍량이 저하됩니다. 필터 한 면에 신문지 등을 대고, 반대 면에서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OK.

더러움이 심할 때에는, 중성 세제를 녹인 따뜻한 물로 씻고, 확실하게 말려서 사용합시다.

- 1년간 약 870엔 이득

- 1년간 줄일 수 있는 CO₂ 약 1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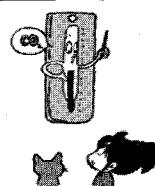


• 설정 온도는 지나치지 않게 !!

냉방은 너무 낮지 않게, 난방은 너무 덥지 않게 조심, 냉·난방 온도를 1°C 조정하면 약 10%의 전기절약,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시다.

- 1년간 약 1,740엔 이득

- 1년간 줄일 수 있는 CO₂ 약 28kg



• 커튼으로 열의 방출을 막는다 !!

에어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능숙하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은 실내에 들어가는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겨울은 실내의 열을 유지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합시다. 커튼은 마루까지 가득 매달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내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전기 코타츠를 사용할 경우

• 코타츠는 요나 이불로 보온하면 이득 !!

코타츠(일본식 난로)를 사용할 경우 덮는 이불뿐만이 아니고 까는 요를 사용하면 6% 절전이 됩니다. 게다가 그 위에 모포를 덮으면 9% 추가 절감되어 합계 15%의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 까는 이불 겸용시 1년간 105엔 이득, CO₂ 2kg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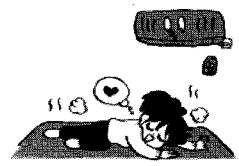
- 모포 사용시 1년간 260엔 이득, CO₂ 4kg 절감



전기 카페트를 사용할 경우

• 발 밑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 카페트 !!

발 밑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전기 카페트는 냉한 체질에 좋고 에어콘과 병용하면 설정 온도를 낮게 해도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 절전이 됩니다. 마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온성이 좋은 매트나 옷감을 전기 카페트 아래에 깔면 열이 마루로 도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 카페트를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반쪽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 여름이나 겨울도, 선풍기가 쳐고 !!

같은 온도라도 바람이 있으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냉방 중에 선풍기를 사용해 시원한 바람을 방 전체에 순환시키면, 에어콘의 설정 온도를 조금 높게 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야간에는 에어콘을 멈추고, 창가에 선풍기를 두어, 시원한 바깥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맥주 한잔을 하는 것도 풍류가 있겠지요.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 계절에 맞추어 적정온도를 설정!!

설정 온도는 「강」 「중」 「약」 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 은 「약」 에 비해 약 20% 소비 전력량이 증가합니다. 계절이나 식품을 넣은 상태에 따라, 설정 온도를 조절합시다.

(「강」 을 「약」 으로 조정할 경우)

- 1년간 약 750엔 이득

- 1년간 줄일 수 있는 CO₂ 약 12kg



• 너무 뜨거운 것은 삶어 !!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뜨거운 것을 그대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소비 전력량이 증가합니다. 또, 다른 식품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뜨거운 것은 식혀서 넣도록 합시다.

(냉장실·냉동실에 50°C 의 것을 넣을 경우와 비교)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74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28kg



• 냉장고 문 사이의 빈틈은 금물 !!

냉장고의 문 패킹에 명함을 끼웠을 경우 떨어질 정도면 패킹의 교환 시기입니다. 문틈에 빈틈이 있으면 전력소비량이 약 5% 증가합니다. 빈틈이 있으면 재빨리 패킹을 교환합시다.

(적기에 패킹 교환시)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84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13kg



• 냉장고 문을 자꾸 여닫지 말아 줘 !!

귀가 후에 「무엇인가 없어?」 하며, 무심코 열어 버리는 냉장고. 문을 연 채로 냉장고 내의 물건을 체크하면서 「오늘의 메뉴는 . . .」 하고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개폐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냉장고의 문 여닫기를 많이 할수록 소비전력량은 증가하니, 쓸데없이 문을 개폐를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개폐가 많은 경우에 비해)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74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2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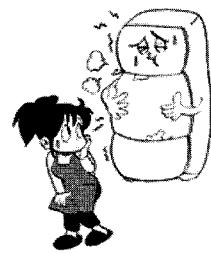


• 냉장고 속을 가득 채우면 전기료 Up !!

냉장고 내에 식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내부에 냉기순환이 나빠져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냉장고 내에서 물건을 찾는 것이 어려워 문을 열고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식품의 유효기간을 넘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앗, 생선살 꼬치구이의 유효기간이 지났군！」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의 정리에 신경 씁시다.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5,88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94kg



• 문을 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냉장고 클립 !!

냉장고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메모해 마그넷으로 된 클립으로 문에 붙여둡시다. 「3시의 간식푸딩은 한가운데 선반 위에」나 「야채실 내에 있는 것은 토마토 2, 시금치 1, 양배추 1, 무 1/2」 등이라고 기입해 두면 쓸데없이 문을 여닫는 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사 메뉴를 생각할 때도 편리하고, 「아차, 집에 있었는데, 또 사 버렸네」라고 하는 실수도 없어집니다.

• 냉장고의 주위, 꽉 끼지 않도록 !!

냉장고를 둘 때 주위에 빈틈이 없으면 방열이 잘 안되고, 소비전력량이 증가합니다. 냉장고는 가능한 한 통풍이 좋은 곳에 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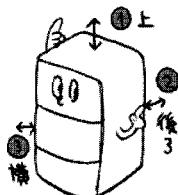
냉장고를 잘 두는 방법

- 윗면에 물건을 놓지 말 것, 간격이 10cm 미만이면 소비전력량이 약 10% 증가합니다.

- 뒷면이 10cm 미만이면, 소비전력량은 약 15% 증가합니다.

다만, 벽에 바짝 붙여도 되는 기종도 있음.

- 측면과 벽과의 사이가 2cm 미만이면, 소비 전력량이 약 20% 증가



조명기기를 사용할 경우

• 불필요한 조명은 Off !!

형광 램프를 빈번하게 켜고 끄는 것은 램프의 수명을 짧게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형광램프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빠짐없이 소등을 하는 편이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1일 1시간 꼴 경우)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27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4kg



• 형광램프가 거무스름해지면 신품으로 !!

형광램프의 양단이 거무스름해지면 교체시기가 된 것입니다. 사용 중에 밝기가 떨어져 비효율적입니다. 평균수명의 70~80%를 지났을 무렵에 전구를 교체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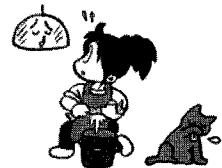


• 전구는 깨끗이 닦아서 사용 !!

램프에 집안 먼지가 붙으면 밝기가 떨어집니다. 만약, 1년간 전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더러워지기 쉬운 부엌에서는 약 40%, 거실에서는 약 20% 조도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전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적당한 청소 주기)

- 식당·부엌 4개월마다
- 거실이나 방 등 6개월마다
- 세면소나 화장실 등 1년에 1회



TV를 사용할 경우

• 보지 않을 때에는 끊시다 !!

보고 있지 않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것은 쓸데없는 전력낭비! 아침, 자명종 대신에 TV를 사용한다든지, 끄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잠들어 버린 경험은 없습니까. 보지 않는 TV는 꼭 끄는 습관을 몸에 익힙시다.

(1일 1시간 끌 경우)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84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13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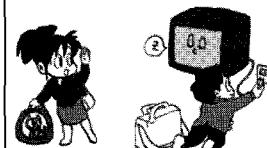


• 장기간 부재중에는 플러그 Off !!

리모콘으로 Off하였을 경우 32인치 와이드 TV인 경우 2.2W. 주전원 스위치를 끄도 미량의 전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콘센트로부터 뽑아 두는 것 만이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TV는 한집당 2대 또는 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티끌도 쌓이면 태산」의 정신으로 절전을!!

<TV를 전원만 차단했을 경우에 비해>

- 1년간 전력요금 320엔 절약
- CO₂ 약 5kg 감축



• 영상을 적당한 밝기로 조정하여 절전 !!

텔레비전의 소비전력은 옥외에서 촬영된 것 같은 밝은 장면에서는 많이 밤 등의 어두운 장면에서는 적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밝음에 의해 소비전력이 바뀌는 텔레비전. 밝기 조정을 잘 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영상조정의 「피쳐」 「밝음」 「색의 진함」 을 각각 최대한으로 하면 표준에 비해 10~30% 소비전력이 많아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밝은 화면은, 눈에도 나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TV에 따라서는 주위의 밝음에 따라 영상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 메뉴를 사용해 주위의 밝음에 따른 보기 쉬운 화면을 선택합시다.

(영상 조정을 최대로부터 표준으로 하면)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12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18kg



• 100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 25인치 TV 약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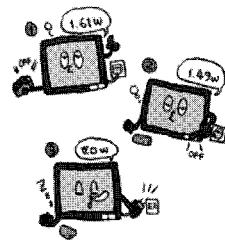
• 1시간 사용하면 비용은 얼마? → 25인치 TV 약 2엔

• 대기 전력도 무시할 수 없다 !! TV 전기절약 3단계 !!

STEP1 손쉽게 끌 수 있는 리모콘으로 스위치 Off. 그렇다면 TV는 다음 지시를 위한 상태로 대기전력을 소비합니다.

STEP2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기 전에 주전원 스위치를 Off로 합시다. 그래도 아직 대기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STEP3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둡시다. 그러면 TV의 소비전력 0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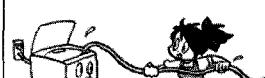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 목욕을 한 후 목욕물을 이용하면 죄고 !!

온수를 이용한 세탁은 더러운 때가 잘 빠져 세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소비량 및 사용물량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목욕한 물은 꼭 재활용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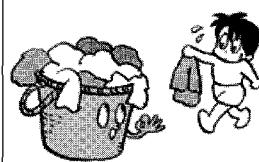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4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2kg



• 모아서 세탁하면 전기료도 절약하고, 수고도 덜고 !!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의외로 적은 것이 세탁물의 양. 세탁기 눈금의 약 80% 정도의 세탁물을 넣으면 효율적인 세탁이 가능합니다. 절반의 용량으로 세탁했을 때와 비교하면 세탁물 1kg 당 소비전력량은 약 17%, 수량은 약 23% 절감됩니다.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4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2kg



• 가벼운 더러움은, 스피드 코스에 맡기시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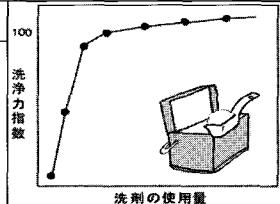
가벼운 더러움인데 표준 코스(약 40분)에서 세탁하면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스피드 코스(약 20분)에서 세탁하면 전력소비량은 약 60%, 수량은 약 30% 절약됩니다. 세탁은 코스 선택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510엔 이익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8kg

• 세제를 많이 넣으면 세탁이 잘된다 . . . No !!

세제는 적당량 이상 넣으면 세척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제전용의 스푼이나 캡으로 적당량을 측정해 넣읍시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행굼의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등 물이나 전기의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 깨끗하게 하려고 밤새도록 물에 담가두는 것은 . . . 함정 !!

「어머나, 이렇게 더러워져 . . . 」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밤새 담궈두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때는 세탁물로부터 일단 분리된 다음에 때 자체가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탁물에 달라붙습니다. 다시 붙은 때는 오히려 더 지지 않으니 조심합시다. 심한 때는 직접 세제를 뿌려서 가볍게 비벼서 세탁하면 효과적입니다.



• 세탁물을 말리는 방법 순서를 지키면 건조 후 정리가 용이 !!

세탁물은 탈수 후, 재빠르게 말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의류의 퀘멘 자리는 꼭 맞게 정돈하고 옷깃이나 소맷부리는 손바닥으로 잘 펴서 넓힙니다. 이렇게 하면 캐주얼인 셔츠 등은 다리미질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바지나 스커트는 뒤집어 옷자락을 아래로 해 말리는 것이 기본 작은 것은 허리부분을 그립으로 접어서 말리면, 바람이 잘 통해 빠르고 예쁘게 마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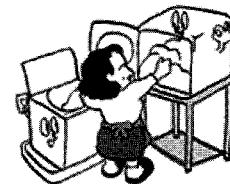
의류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 모아서 세탁했으면 건조할 때도 모아서 건조 !!

의류 건조기도 표시눈금의 약 80%의 세탁물을 넣으면, 용량의 50%만 넣고 건조시켰을 때 보다 약 15% 절전이 됩니다.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3,970엔 이익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63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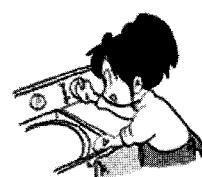


• 의류를 건조하기 전에 반드시 탈수 !!

의류 건조기로 건조를 하기 전에 5분간 탈수를 하면 3분간 탈수할 경우에 비교 약 10%의 절전이 됩니다. 건조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은, 충분히 탈수하고 나서 의류 건조기에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2,580엔 이익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41kg



• 의류 건조기의 필터는 적기에 청소 !!

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필터 청소. 청소를 하지 않는 채 3~5회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5~7%의 효율이 저하됩니다. 게다가, 내부에 형광 조각들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사용할 때마다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48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24kg



- 100엔으로 사용가능 시간 → 전자동세탁기 약 53회, 의류건조기 약 1회
- 1시간 사용하면 비용은 → 전자동세탁기 약 2엔, 의류건조기 약 73엔

전기밥솥을 사용할 경우

• 밥의 보온은 6시간까지 만 !!

전기밥솥으로 한 밥을 7시간 이상 보온해 두는 것은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일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남은 밥을 장시간 보온해 두는 것보다도, 1회분씩 나누어 냉장·냉동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1회분(200~300g)의 밥을 전자렌지로 데워서 먹을 경우 전기요금은, 냉장실에서 보존해 둘 경우에는 약 0.7엔, 냉동실에서 보존해 둘 경우에는 약 3엔. 밥을 데울 때 술을 조금 넣으면 밥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 1년간 전력요금 2,650엔 절약
- CO₂ 약 42kg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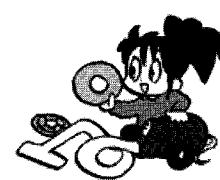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 청소하기 전에 먼지를 털어 낸다 !!

먼지나 쓰레기 등이 수집봉투나 필터에 낀 채 청소를 하면 모터에 부담이 갑니다. 필터나 수집봉투를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기를 사용하면 연간 소비전력량은 약 18kWh 절약됩니다.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37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6kg



• 청소하기 전에 물건들을 정리하면 효과적 !!

방의 정리를 하고 나서 청소기를 사용합시다. 그 편이 훨씬 청소할 수 있고, 전기도 절약됩니다.



• 청소기 강, 약 조절이 중요 !!

자동적으로 파워를 콘트롤하는 퍼지타입이 아닌 경우, 용단은 「강」, 방이나 마루는 「중」, 커텐 등은 「약」으로 파워를 조절하여 사용합시다. 또, 용단청소에 편리한 파워 솔 방식이나 이불용, 벤툴용 등 용도에 따라 노즐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먼지가 많이 있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

용단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에 먼지가 모입니다. 거실이나 방은 구석 쪽에 먼지가 쌓입니다. 잘 기억해 두면 청소기를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용단은 처음 청소할 때 좀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청소하는 것이 핵심. 방이나 거실은 청소시간은 짧아도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수 비데를 사용할 경우

• 온수 비데는 사용할 때만 뚜껑을 열어 주세요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닫는 습관을 불입시다. 뚜껑을 닫아 두면 뚜껑의 보온효과로 변좌의 표면이 보온이 됩니다. 언제나 뚜껑을 연 채로 사용하는 것보다 소비전력량이 최대 11% 적게 됩니다. 게다가 뚜껑을 닫아 두는 편이 외형도 품위 있고요.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31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5kg



• 계절에 맞추어, 설정 온도를 조정 !!

좌변기, 온수, 건조의 설정 온도는, 계절에 따라 적정하게 맞추어 조정을 합시다. 「高」와 「低」로 설정하였을 경우를 비교하면 연간 소비전력량은 「低」 쪽이 약 250kWh나 절약됩니다.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5,17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83kg



• 외출시에는, 좌변기 보온 스위치 Off !!

온수 비데의 각 기능별 1년간의 소비전력량을 보면 「건조 < 온수 가열 · 보온 < 좌변기 보온」의 순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좌변기의 보온 스위치를 꺼 두면 절전이 됩니다.

- 1년간 전력요금 절약 : 1,610엔 이익
- 1년간 감축 CO₂량 : 약 26kg